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30분 7시
오전 (2부) 7시30분 10시
오전 (3부) 10시 2시
오전 (4부) 2시 4시
주요일배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10시
오전 (2부) 10시 2시
오전 (3부) 2시 4시
주요일배 (1부) 18시30분

인천 교회 0321 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6월 2일 (제692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칼럼

인생을 즐기며 살자

골프장에 가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된다. 하나는 18홀 내내 오직 골프공만 쫓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골프도 하고 주변 경관도 함께 즐기는 사람이다. 전자는 부리나케 공만 쫓는 자로 결과에만 집착하는 자다. 그러나 후자는 스윙 한 번에 스트레스를 날리고, 또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도 느끼고, 주변 환경도 여유롭게 바라볼 줄 아는 과정을 즐기는 자다.

나는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눅14:26)는 말씀을 받았을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여유를 느낄 만큼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70을 바라보며 삶을 뒤돌아보니 인생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도들 중에도 오직 돈이나 명예만을 쫓는 자들을 본다. 조그만 구멍 안에 공만 넣으려 애쓰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삶의 주변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지금 지나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 내 가족, 아름다운 사람들...

인생을 즐기며 살 줄 알아야 한다.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달리는 시대다. 자동차에는 전방은 물론 백미러, 좌우 사이드 미러에 후방카메라까지 있다. 사방을 다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사방을 살펴며 폭넓게 살아야 한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깐.

잠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라. 당신이 놓친 것에서 아름다움을, 행복을, 사랑을 느끼게 되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구하라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 집회를 마친 총회장 목사님은 일정보다 서둘러 귀국하셨다. 5월 27일부터 장성 예루살렘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춘계산상집회의 성공을 위해서이다. 마치 출근했던 엄마가 아이들과 집이 걱정되어 서둘러 귀가한 것 같은 마음이다. 목사님은 미처 여독도 풀 여유 없이 철야예배와 주일에배를 인도하신 후 곧바로 기도원으로 향하셨다.

27일 당일, 여름 장맛비처럼 비가 내렸다. 그러나 잠실 체육관 앞에서는 버스를 증차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을 찾았다.

라고,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조목조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뽕을 고쳐주세요.”, “돈이 필요해요.”, “집이 없어요.”, “아들이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고, 초월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

을 것이 변변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는 ‘잘 좀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공황에서부터 뽕을 구워 내오는 등 풍성한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6:11)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이 제제합니까? No. 섬세하신 것입니다. 중언부언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때가 표류하듯이 목적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



춘계산상집회(2013년 5월 27일 ~ 30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집회 첫날,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가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시다. 이는 제가 농부의 아들로서 농번기를 맞아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절박한 심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모내기를 위해 비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성산에 왜 올라왔습니까? 어떤 기도를 들고 왔습니까? 친구가 강남 가니까 그냥 따라왔습니까?

저는 이 춘계집회를 위해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 기도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나지 말게 해달라고, 먹을 것, 곧 씹으며 부식이며 각종 먹거리가 풍족하게 해달

라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대하1:7~10)처럼,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대답한 바디매오(막10:51)처럼, 예루살렘성이 해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급식 기도한 느헤미야의 안색을 본 아닥사스다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답한 것처럼(느2:4~8), 급식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에게 왕이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했을 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에7:1~3)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000년 우크라이나에 처음 갔을 때 먹

호하게 말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37:4~6)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무나 자를 때는 한 곳만을 집중적으로 토크해하 하는 것처럼 목적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진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설교 후 목사님은 병든 자들을 일일이 단에 올려 안수하셨고, 마치 익은 과일에 손을 대면 떨어지듯이 귀신들이 요동치며 떠났다. 목사님이 조목조목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영서

jesus5526@gmail.com



우리의 영-혼-육을 살피우는 기도원 집회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이다



단상에 올라온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셨다



매사 기필코 정신을 가져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4:4~7)

20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종살이 하던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을 향하던 모세, 닫힌 태의 문을 열어 평생소원인 아들을 얻은 한나(삼상 1:27), 앗수르 침공과 산해립의 능력에서 살아남고(왕하19:19), 죽을병에서 고침을 받고 수명을 연장 받은 허스기아(왕하20:2), 자국 이스라엘 민족을 풍전 등화의 지경에서 구원한 에스더(에 4:16), 굶어 허기진 사자 굴속에서 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단 6:22)...

위에 열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전들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워서, 가문이 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연약한 존재였고, 흠도 많았으며, 내세울 것도 없는 자들이었고, 지혜도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전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기업에, 내 나라에 분명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례한다

병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교통 중에 있습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합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됩니까? 나라가 불안정합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요,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함으로”(약4:2)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고(시107:19~20), 기도하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시107:30). 그리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빌4:6~7), 크고 비밀한 일도 알게 하십니다(렘33:3). 그리고 기도하면 병도 낫습니다(약5:15). 더불어 죄 사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약5:15).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학

벌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진실한 마음과 무릎만 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인들은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필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 ‘기필코’라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 데,

그것은 바로 ‘기필코’라는 정신의 유무(有無)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라면 응답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필요’라는 어머니가 ‘기필코’라는 아들을 낳는 법이니까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어느 작은 교회에 나갔습니다. 참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처음 교회에 갔는데 성도들이 다들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이왕 예수 믿는 거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방언이라는 것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나도 방언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도 들을 수 있을까요?”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에 가서 맨 앞에 앉아 그 동안의 일을 회개하면서 제 성격대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제 일에서 “더더더”하는 소리가 나며 멈추질 않았습니

다. 방언기도가 터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밤을 새가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뒤집새라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하다 성가대 장의자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로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필요’의 어머니가 ‘기필코’라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이끌리라’는 기필코 정신으로 기도했기에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알기 쉽게 비유로 설교하는 전무후무한 자가 되겠다’는 기필코 정신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여 오늘의 저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갈릴산에서 450명의 바알선지자와 대결



한 엘리야는 ‘기필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 문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작정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종식시켰던 것입니다(왕상18:42). 수로보니게 여인을 아십니까?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물어물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깨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고 말씀하셨습니다. 개 취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아레 깨들로 아이들의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막7:28).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의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기필코 정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막7:29)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필코 내 원한을 풀고 말리라’며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 한 과부의 이야기(눅18:1~8)며, 여행 중에 찾아온 벼를 위

하여 떡을 얻고야 말겠다는 어떤 친구의 이야기(눅11:5~8)처럼 우리도 이 ‘기필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

필요의 어머니는 기필코라는 아들을 낳는다

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이는 얻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필코 응답 받고 말리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들 녀석들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큰 아들 녀석이 학교 가기 전에 제게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없다’고 했더니 녀석은 그냥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둘째 녀석이 콩팡거리며 들어오더니만 역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큰 아들에게 한 것처럼 없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오늘 꼭 필요한 돈인데, 돈 안 주면 학교 안 갈 거예요.” 이러면서 때를 쓰는 겁니다. 정말 돈 안 주면 학교 안 갈 기세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줬습니다. 그가 나간 다음에 밖을 보니까 이 녀석이 글썽타단 돈 일부를 제 형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때 문득 든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께도 둘째 녀석 같으면 얻겠구나.”

여러분, 이처럼 소망의 열도와 응답은 정비례합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병 낫기를 원합니까? 취직하기를 원합니까? 남편이 돌아오길 원합니까? 좋은 배필을 원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기필코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필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진 야곱에게처럼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고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필요의 어머니에게 효과하려면 기필코 정신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수화통역 예배안내

금요일
매주 주일 10시 & 2시 예배

주축복 전도사 (서울)
010-3256-0288

김서분 전도사 (인천)
010-7160-5497

부유한 부자와 가난한 부자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등장한다. 그들 중에는 부자의 부요함을 누리며 배푸는 여유 있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있으면서도 가진 자의 부요를 누리지 못하고 여유가 없는 가난한 부자들이 있다.

성경 곳곳을 읽다가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부자를 보고 참 여유 있고 품위 있는 부자를 만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기생 라합의 아들로, 출신이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자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유력자'란 권세와 재물을 함께 가진 자라는 뜻이다.

그가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돌아온 친척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룓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여유롭고 풍성한 기쁨을 받았다. 그는 룓이란 이방여인이 자기 앞에서 이삭줍는 것을 보고 그녀가 룓임을 알고는 큰 배려를 한다. 자기 추수 끝날 때까지 자기 곡식밭에서 계속 줍게 하고, 일꾼들에게는 그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며, 추수꾼들에게는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흘려서 그녀가 쉽게 줍게 하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식사도 함께하게 하고, 그의 어머니 라합을 생각했는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라며 룓을 격려해준다. 룓은 그의 권력에 "당신의 시녀만도 못한 저에게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감사한다(룓2:12-13).

그는 후에 다른 부자 친척이 재물의 손

해를 볼까와 거절한 기업 무르기를 하여 가까이 나오미의 잃었던 땅을 되찾아주고, 룓을 아내로 맞아 오벧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으며 더 큰 축복을 누리다.

신약에도 빌레몬이라는 부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큰 평안을 끼치고, 집에 교회를 세워 사도 바울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는 넉넉한 부자를 보게 된다.

반면,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은 갈릴산 지역의 큰 부자였다. 그는 양털을 깎는 큰 잔치에 그의 우양을 늘 돌봐준 다윗이 먹을 것을 청하자 막을 것은 커녕 쪽박 깨는 소리를 해서 쫓아 보낸다. 그리고는 자기는 왕 같은 잔치상을 베풀어 먹고 마셨다(삼상25:36). 결국 그는 자기 밖에 모르는 가난한 부자, 가진 자의 여유가 없어 베풀 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 죽음을 재촉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도 베풀 줄을 몰랐다. 거지가 자기 문 밖에서 헨데가 나서 개가 핥는 데도 금출을 베풀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 더 좋은 길로 인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죽어 음부에 떠도는 신세가 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만 부요하며, 창고를 넓히고 가득 쌓아두는 부자에게 "오늘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충고하셨다. 부자청년도 역시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한 가난한 부자다.

부자로 죽을 것인가, 부자로 살 것인가? 있는 자의 여유를 갖고 베풀며 살 것인가?

가? 끝내 아등바등하다 두고 갈 것인가? 우리 교단 성도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길 원한다. 멋진 참 부자, 여유 있는 부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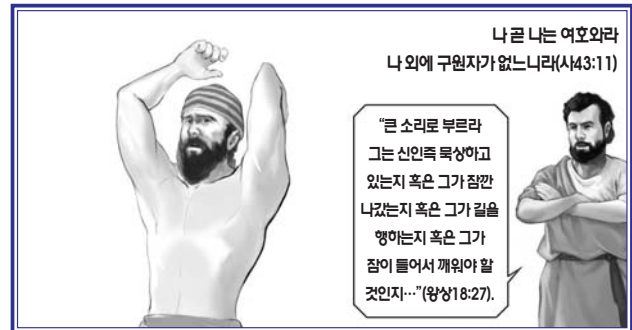
세상엔 없어도 마음이 부유하여 베풀며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갖고도 걱정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가난한 부자가 있다. 놀부 같은 부자는 참으로 가난한 부자다. 사울왕도 참으로 불쌍한 왕이다.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베풀지 못하고, 시기 질투에 빠져 말년을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쫓기는 마음으로 쫓아 다니다 죽었으니.

다윗 왕과 같은 부자가 되길 바란다. 그는 도망자 시절에도 그림자 거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었고, 블레셋 땅 시글락에 망명생활 할 때도 부술 시냇가에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200명의 군사에게도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와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주는 배려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전리품 중 일부를 떼어 평소 자기

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여유도 가졌다(삼상30). 그뿐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올라 자리가 잡히자 자기에게 은혜 베풀었던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 질투발이 된 브비보셋을 불러 사울왕이 가졌던 재산을 다 돌려주고, 종들을 풀어주고, 자기 자식처럼 궁궐에서 함께 지내도록 베풀어 주었다. 가진 자의 베풀고 여유를 엿볼 수 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뿐 아니라 그 일을 자랑하여 도움 받는 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롬 15: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약함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이시대 목사



JC Academy series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다

지난 22일 JCA카데미에서는 이시대 목사의 열왕기상 강해가 이어졌다.

"역대상 · 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넘어 영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책이라면, 열왕기상 · 하는 객관적인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윗 왕이 늙었을 때 아도니야가 후계자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 다윗은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요압 장군과 시므이, 아도니야와 같은 정적들을 모두 숙청한 후 가장 먼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시다. 이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놀랍게도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왕상 3:10).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러지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약4:3).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고 하였으니(잠2:7),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천 번제에 이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으로 굴곡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난 솔로몬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 여인들의 우상 숭배를 용인한 것으로 말미암아 타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절대 당신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다윗 왕을 향해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7:15-16)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가 유지되어 안정적이었던 반면, 우상숭배로 얼룩진 북이스라엘은 아홉 개의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하박국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과 국가, 자녀들의 흥망성쇠는 주변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 의

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며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번의 '중심'입니다. 이 나라가 굳건히 서는 것, 우리 가정의 바로 서는 것, 모두 우리의 중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 비할 수 없이 특별히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된 우리를 편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목적을 향해 계속해서 달음박질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 국가와 백성과 개인,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의 결말을 배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놓고 온 힘을 다해 그 분을 섬겨,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받아 누리려는 젊은이들이 되자.

"청년!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전 12:1).

이국진 기자

joyful_jina@hanmail.net



귀를 기울이세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은 1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약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근 몇 년간,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이슬람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이 '비전2080' 달성을 위해 매우 치밀한 전략을 짜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계 주요 도시에 그들의 성전이자 삶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모스크를 세우는 것인데, 1962년에는 영국 런던에 모스크가 1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무려 600개가 훨씬 넘는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유럽 인물 중에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유럽에서의 무슬림 세력은 3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그 성장을 견인한 것이 바로 그들이 세운 모스크였습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약 20%를 이슬람교의 전파와 모스크 건립 같은 선교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 그 그들의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리신 자상명령임을 잊지 맙시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b@naver.com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눅 18:16)



점심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나선 체코 목회자들



점심식사 후 식당 앞 야외에서 기념촬영

목사님이 처음 방문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첫 집회에는 늘 아로한 흥분과 기대가 앞선다. 특히 예배에 앞서 보여주는 목사님의 15분짜리 집회 영상은 그러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그들은 영상을 보며 곧이어 단에 나타날 목사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갖게 될 터이지만, 실상 예배에서 그들이 목도하게 될 놀라운 장면은 감히 상상조차 못한 다.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하고,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앉은뱅이 등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은 매번 접하는 우리조차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데, 그런 장면을 더군다나 바로 눈앞에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받을 충격과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바로 얼마 후면 그들이 미처 상상

날에 받을 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찌 현장에 있던 우리뿐이라? 이는 목사님의 선교사역을 위해 후방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아낌없이 물려준 후원한 모든 자가 함께 누릴 상이다. 이튿날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더욱 신나는 일이 일어났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에 책임진다. 자녀는 부모에게 달릴 권리를 갖는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딸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달릴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다. 왕의 자녀, 곧 왕자와 공주가 어떤 권세를 갖는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어린 아이처럼 솔직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구하라. 어린 아이는 부모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울며 달라고 떼쓰지 않는가?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가? 구하지 않기에 받지 못하고, 찾지 않기에 찾지 못하며, 두드리지 않기에 열리지 않는 것이다. 어린 아이처럼 솔직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목사님은 러시아어, 체코어 3자 통역으로 진행된 세미나에 열강을 펼치신 후, 갑자기 회중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지금 나에게 점심식사를 사줄 사람 손들어보세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을 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약 20여명쯤 되었다. 목사님은 그들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어 기도해 주신 후, 예배 후 이분들과만 함께 식사 하겠노라 말씀하셨다.

“나는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내가 밥 사 달라고 말하면 분명히 사줄 사람이 나올 거란 믿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들고 앞에 나온 분들도 믿음이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종을 대접하여 상을 받았다는 믿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돈이 없더라도 내가 저분과 식사하고 싶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들고 나오면 내가 여러분을 대접하는 역사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침묵하는 것이요, 어린 아이처럼 진실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바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은 웃도 같아입지 않으신 채, 1층 식당으로 그들과 함께 내려가 식사하셨다. 또한 식사 전에 다시 한 번 그들을 축복하시고, 오늘의 사건을 일기에 기록하여 일생에 이 믿음을 잃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하셨다. 끝으로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각각 식사비를 모았는데, 계산한 총액보다 약간 많은 액수가 겹쳤다. 정말 정확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 없었다.

식사 후 밖으로 나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수도 프라하(Prague)에서 온 목회자를 비롯하여 여타 도시에서 온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을 자기 도시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좌우간 하나님의 은혜는 받고 볼 일이란 목사님의 말씀이 불언듯 생각났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들이 언제 목사님을 보았다고 저처럼 열렬한 팬이 되어 사탄 한 장이라도 더 같이 찍으려 안달이 난단 말이다. 목사님의 뜨거운 열정이 전염된 것이요,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된 징표가 분명하다.

세계 어느 곳이나 성령의 불을 던지려 다니시는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은 체코(Czech)에서도 분명히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이었다. 기도해준 모든 분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크라이나(Ukraine), 러시아(Russia),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 독일(Germany)에 이어 체코와 슬로바키아(Slovakia)에 떨어진 이 성령의 불이 전 유럽을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Edu Section::

비전 보드(Vision Board)를 제시해주자

미국 나사(NASA) 항공공에서 있었던 일이다. 달 착륙 우주선 제작을 위해 연구하던 그들의 연구센터 내부에는 벽면에 커다란 달 사진을 붙여 놓았다고 한다. 매일 연구실에 붙은 달 사진을 보며 우주선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을 확실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계획보다 2년 앞서 성공적인 달 착륙이 이루어졌다.

연구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달 사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이상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자녀의 미래모습을 제시해주면 어떨까? 소중한 자녀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그들의 꿈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 보드’이다.

예를 들어, 책임감을 즐겨하는 자녀가 있다면 막연히 책임감을 거둬주어주기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전망 제시를 해보는 것이다. 왜 책을 읽는지, 책 속의 인물들에 대한 자녀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

로의 전공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관련 학과와 대학, 해당 직종을 찾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취미 생활의 일부였던 독서로 인해 우리의 자녀는 문학 박사 혹은 국어 선생님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한 학부모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분에게 당신의 자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나고 여쭙자하니, 뜻밖에도 그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자녀와 함께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하셨다.

자녀의 성적에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떤 계획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해야 할 공부의 내용과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막연히 ‘공부해라’식의 자녀 교육법은 이제 지양하도록 하자. 그분에게 오늘부터라도 자녀와 충분한 대

화를 나누고, 자녀가 가진 적성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살펴 보면서 그에 합당한 미래의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볼 것과 친구들과의 역할놀이를 통해서 자녀의 관심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볼 것을 권면했다.

목적지를 잃은 기차는 탈선하고, 방향키를 잃은 배는 표류하고 만다. 자녀 교육도 동일하다. 자녀와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비전 보드’를 제시해줌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자. 더구나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비전 보드’와 더불어 생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아침저녁으로 되새길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순아

lovelyactor@naver.com

덕이 없는 이름 따움은

향기 없는 꽃과 같고

지식이 없는 열정은

화로 없는 불과 같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금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7절)